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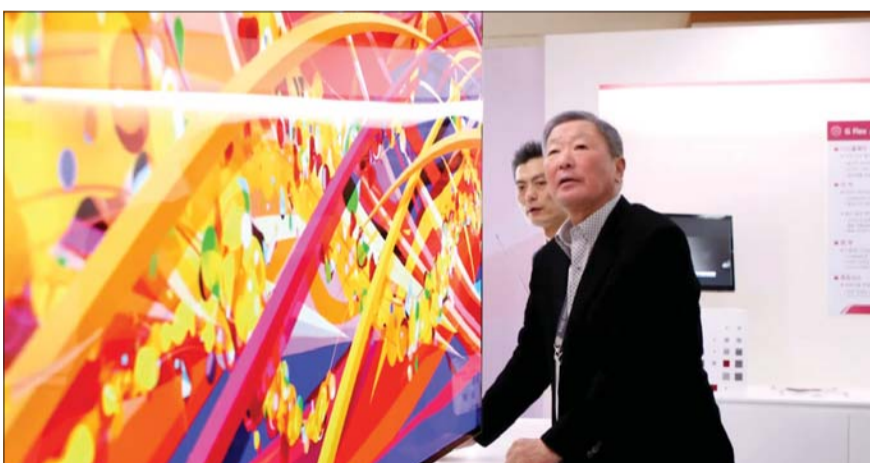
지난 1995년 2월 22일 LG 회장 이취임식에서 구본무 선대회장이 LG 깃발을 흔들고 있다.



지난 1995년 10월 구본무 회장(왼쪽 두 번째)과 허창수 당시 LG전선 회장(세 번째)이 LG전자 평택공장을 찾아 라인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 2002년 5월 구본무 회장(가운데)이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지난 2014년 3월 연구개발성과보고회에서 구본무 회장이 연구과제인 LG전자 올레드 TV를 살펴보는 모습.



지난 2015년 12월 마곡 LG사이언스파크 건설 현장에서 구본무 회장(가운데)과 하현희 (주)LG 부회장(오른쪽)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LG

‘인재·기술·글로벌’ 독심경영 160조 초우량기업 ‘LG’ 결실



구 본 무 LG그룹 선대회장

“경영여건이 어려워질수록 경쟁력 확보의 핵심이 되는 우수인재 확보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더욱 과감히 집중해 나가야 합니다”

무려 20년간 실무 경험을 쌓고 제 3대 회장에 올라선 구본무 선대회장은 지금의 LG그룹을 탄생시킨 장본인이다. 그는 LG의 비장의 무기인 배터리 사업을 탄생시킨 인물이다. 구 회장은 50대의 늦은 나이에 취임한 만큼, ‘독심경영’을 발휘하며 영속기업 LG의 기반을 탄탄히 마련할 수 있었다.

럭키금성 사명 변경… LG 재탄생
이차전지 등 미래신사업 적극 도전
2017년 사상 최대실적 160조 달성

◆20년간 실무경험 쌓아 LG브랜드 탄생시켜

구 회장은 1995년 2월 22일 그의 나이 50세에 부친인 구자경 명예회장이 은퇴하며 LG의 제 3대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특히 이날 취임식은 구자경 2대 회장의 이임식과 함께 진행했는데, 재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는 구 회장이 LG그룹의 경영문화를 충실히 습득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구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사업구조 재편으로 ‘초우량 LG’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하며 그의 경영철학인 ‘독심’을 공표했다.

구 회장의 경영철학은 지금의 LG가 탄생하는 데서부터 비롯됐다. 그는 취임 직전 ‘럭키금성’을 LG로 기업 이미지(CI)를 바꾸고 LG 브랜드를 탄생시키는 데 주도한 인물이다. 당시 사명 변경을 두고 많은 반대가 있었는데, 막대한 비용이 예상되는 데다 ‘럭키’와 ‘골드스타’의 입지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당시 부회장이었던 구 회장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위해 사명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CI 변경을 추진한다. 이후 1995년 1월 1일 럭키금성을 ‘LG 브랜드’로 대내외에 알리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게 된다.

◆불모지 배터리 사업 개척…캐시카우 창출

특히 구 회장은 현재 LG의 캐시카우(현금창출원)인 배터리 사업을 도입했다. 구 회장은 1990년 대 초 당시 영국에서 충전식 2차 배터리를 접한 뒤 불모지나 다름 없던 배터리 사업에 도전했다. 그는 2차 전지 샘플을 직접 가져와서 럭키금성 속 배터리 연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기반 사업이나 지식이 없어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구 회장은 독심있게 사업을 밀어붙였다.

LG에 따르면 배터리 사업은 2000년 대 초에도 2000억원 가까이 적자를 기록해 내부에서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자 구 전 회장이 “포기하지 말고 길게 보자. 꼭 성공한다는 확신을 갖고 다시 시작하자. 여기에 우리 미래가 있다”고 임직원들을 다독였다고 한다.

이후 구 회장은 경제불황 속에서도 연구개발(R&D)에 적극 나섰고, 그 결과 전기차 배터리 등 중대형 2차전지 분야에서 LG는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현재의 LG화학은 이를 발판 삼아 탄생한 주요 계열사로 꼽힌다.

실제 이방수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은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LG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확보와 오톨 경영의 역할’ 세미나에서 “1992년도에 이차전지를 시작해 수십 년이 지난 현재 한 산업을 이끌어가는 씨앗이 됐다”며 “이같은 산업은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등이 있는데 모두 오톨들이 긴 안목을 갖고 투자하고 독심 있게 이끌어간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에 구 회장은 회장 취임 당시 매출액 30조원 규모에서 2017년 좁은 사상 최대 실적인 160조원을 달성했다. 특히 이는 GS, LS 등을 계열분리한 이후 다섯 배 이상 성장시킨 것으로 비약적으로 신장시킨 셈이다.

◆3대 핵심 사업군 육성 집중 ‘인재 발굴’ 강조

특히 구 전회장은 취임 후 경영철학으로 ‘신뢰와 독심’을 연이어 강조했다. 경영환경이 어려워 수록 선제적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미래 성장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론이다.

이에 구 회장은 제 2의 경영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 ‘전자, 화학, 통신서비스’ 3대 핵심 사업군을 집중 육성해 LG를 글로벌 기업으로 키운 것. 특히 가전, 전자 등 주력사업을 목표로 선제적인 투자를 집중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사업으로 이끌었다.

이 과정에서 구 회장은 LG가의 경영이념인 사업보국, 국민민복(國民民福)을 실천하게 된다.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해외 시장을 개척하면서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한 것.

실제 구 회장도 LG가 영속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신념을 바탕으로 한 인재 육성과 R&D를 폈다. 구 회장은 공식 석상에서 신뢰와 인재 관련 발언을 빠뜨리지 않았다.

그는 지난 2007년 신년사와 2008년 컨센서스 미팅을 통해 각각 “경영환경이 어렵다고 사람을 안 뽑거나 함부로 내보내서는 안됩니다”, “시련 극복의 과정을 통해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인간존중 경영의 참 뜻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라며 인재 육성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인재확보 위해 매년 테크노 컨퍼런스 참석
‘전자·화학·통신’ 3대 핵심사업 집중 육성
해외시장 개척… 사업보국·국민민복 실천

특히 구 회장은 2011년 LG인재개발대회에서 최고경영진들에게 “좋은 인재가 있다면 회장이라도 직접 찾아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구 회장은 2012년 R&D 인재 확보 차원에서 시작한 ‘LG 테크노 컨퍼런스’에 매년 빠짐없이 참석했다, 불참한 시기는 건강 악화로 병상에 누워있던 2017~2018년 뿐이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